

꿈 시퀀스 이미지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데이빗 린치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를 중심으로)

이태훈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A study of dream sequence in Freud's Psychoanalysis (Focusing on the David lynch's film "Mulholland Drive (2001))

Tae-hoon Lee

Dept. Digital contents, Kyung-hee University

요 약 지난 백년간 많은 영화가 꿈의 강박관념과 억압된 소망에 대한 충족을 표현하는데 급급하여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마음 속 깊이 은폐되어 있던 무의식속 욕망이 위장된 형식을 통해 드러나며 희망의 실현을 추구하는 실제 꿈의 형식과 같이 표현되어 온 영화는 극히 드물었다. 특유의 난해함과 몽환적인 구조와 스토리로 잘 알려진 명장 데이빗 린치 감독은 그의 대표적인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에서 꿈의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과정과 형식을 보다 더 꿈과 같은 몽환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낯설게 묘사된 그의 영화 구조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연구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그가 어떻게 리얼하게 꿈을 표현했는지를 분석하려한다. 통념적으로 꿈의 세계는 완전히 시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사물에 대한 느낌이 가장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꿈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현실과 같은 사실적인 체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임을 보다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꿈 시퀀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데이빗 린치, 이미지 왜곡

Abstract For the past hundred years, since many films have only been focusing on expressing suppressed desire and obsession, there have been few films in which unconsciousness desire is expressed and pursuing dream comes true as Freud says. Well known for a convoluted and dreamy structure and plot, David Lynch successfully represents a real dream sequence with his own way of image presentation form in his representative film "Mulholland Drive (2001)". In this study, I attempt to analyze how he expresses the realistic dream sequence with a strange film structure based on Freud's psychoanalysis. In general, dream world is known as completely visual matter, but the feeling of things is more important for making a realistic dream and it is the main reason that we can have more realistic experiences in a dream.

Key Words : Dream sequence, Freud, Psychoanalysis, David lynch, Image distortion

Received 17 October 2016, Revised 27 Nov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Tae-hoon Lee
(Dept. Digital contents, Kyung-hee University)
Email: thlee1401@empas.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 목적

지난 백년간 많은 영화가 꿈의 강박관념과 억압된 소망에 대한 충족을 표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실제적인 꿈의 발현양식에 맞춰 꿈과 같이 이미지를 프레젠테이션 해온 영화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십세기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꿈이 억압된 생각과 소망이 모종의 위장된 방식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본질이 “희망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으며 현대 심리학에서는 통념적으로 그의 주장을 꿈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듯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유의 난해함과 몽환적인 구조와 스토리로 잘 알려진 명장 테이빗 린치 감독은 그의 대표적인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에서 꿈의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과정과 형식을 보다 더 꿈과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이드가 언급한 꿈에 대한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영화를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입하여 어떻게 실제적 꿈의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꿈 시퀀스를 묘사하는 과정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더 꿈과 같은 표현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축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묘사된 독특한 꿈의 서사방법들을 각각 케이스로 설정하고 이를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입,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다 더 꿈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도출할 것이다.

2. 이론

2.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본 “꿈”

정신분석학은 일반적인 심리학과 구별되는 ‘무의식(Unconsciousness)’이라 불리는 의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억압된 감정과 욕망, 생각 등이 인간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을 다룬 연구 분야인데[1], 그 창시자인 프로이드에 따르면 꿈꾸는 사람은 꿈 작업이라

는 과정을 통해서 억제되어 있는 욕구 즉 잠재몽 내용을 이상한 발현몽(꿈으로 표현된 자세한 내용) 내용으로 바꾸어냄으로써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를 피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깨어 있을 때 충족되지 않는 충동이 꿈속에서 지각(知覺) 영상이나 장면으로 나타나며 추상적인 용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되살아나거나 특정한 물건이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매우 많은 상징이 이용된다고 한다. 또한 정신적 능력과 검열의지의 퇴행과 맞물려 압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발현몽 내용은 여러 가지 잠재몽 내용을 압축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여러 가지 발현몽 내용이 하나의 잠재몽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압축은 무의식이 그대로 발현몽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들이 겹쳐 나타나거나 극히 일부본적인 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꿈이 비논리적이고 그 내용이 무의미한 듯 보이거나 유치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 꿈속에서는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꿈은 그 본질인 “희망의 실현”을 위한 무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렇듯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프로이드는 널리 알려진 대로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드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본능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이다. 또한 초자아는 양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지, 비난, 억제의 체계와 자아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도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인다. 자아는 이러한 이드의 충동과 초자아의 도덕적 억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중재하는 심리적 주체라고 규정하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



[Fig. 1] Freud's Psychoanalysis

<Table 1> summary of Freud's Psychoanalysis

definition		oppressed desire inside unconsciousness
form		potential dream is embodied revelation dream
expression	transposition	one thing is expressed as other things or other person
	compression	one revelation dream can be various potential dream with compression
	symbolization	abstract thing can be changed certain figure or activity

3. 본론

3.1 데이빗 린치의 작품세계

특유의 난해함과 몽환적인 구성으로 알려진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컬트영화 감독 데이빗 린치는 그의 대표적인 영화 “로스트 하이웨이(1997)”이후에 다시 발표한 꿈을 다룬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 (2001)”로 2001년 뉴욕 비평가 협회상 작품상, LA비평가협회상 감독상,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였다[5]. 영화 전반부 2/3가 주인공인 다이앤이 죽기직전 꿈으로 묘사되고 나머지 러닝타임을 현실 속 리얼리티를 폭로하는 형태의 독특한 스토리 구조로 현실과 망상을 오가는 스타지망생의 애증과 욕망을 다룬 꿈이 의식의 수면 위에 떠오르는 설정으로 절투와 좌절 등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통해 자본과 파워가 지배하는 할리우드의 냉정하고 비정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주인공 다이앤의 억눌린 욕망들, 잠재된 무의식들이 현실 혹은 기억의 조각들과 뒤섞여 재구성된 컬트형식의 구조로 할리웃에서는 꿈도 사랑도 영화도 모두 허상이며 성공에 대한 꿈은 인생의 파멸만을 부른다는 감독의 사회의제를 표현하고 있다. 베일에 가려 계속 들추어내도 알 듯 말 듯 한 모호함이 연속되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이와 같은 영상구조는 완전한 꿈의 세계, 무의식의 영역에 관해 끝없는 모호함을 추구하는 작가주의적인 영화라고 말 할 수 있다[6].

3.2 데이빗 린치 영화의 정신분석학적 분석

꿈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꿈속에서는 행위가 명확하지도 소리가 명확하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7]. 앞서 언급한대로 꿈은 의식의 검열 속에 무의식속 억압된 욕망이 분출되는 형태로 초자아와 이드의 갈등 속에 다

양한 구조로 압축, 축소, 왜곡, 상징되며 드러나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무의미한 듯 보이거나 유치해 보이는 이미지들의 연속된 나열 등으로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8]. 즉 모든 것이 연결된 구조이지만 논리적인 흐름이 없음과 같이 꿈속에서 우리가 본 것이 실제모습과 같은 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낌으로 무의식이 저장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개연성의 부족과 이해의 한계에 부딪혀 난관을 겪게 되며 실제 의식에서 각인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드러나기 보다는 언뜻 입력된 어렵풋한 인상과 느낌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느낌으로 개인에게 다가섰었느냐가 더 의미와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비논리적인 감성이 느낀 바대로 재구성 묘사되어 보이는 꿈처럼 개인중심의 세계를 정확히 묘사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9].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이러한 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프로이트가 주창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충실히 편승하여 표현, 묘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묘한 꿈을 꾸었을 때 상징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심리처럼, 영화가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조각조각 해체하게 되고 모든 이야기는 인물, 단어, 장소, 색상, 그리고 소리와 같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무언가로 묘사되어 꿈이 그러하듯 다른 이야기로 부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10].

3.2.1 현실에 대한 전위, 왜곡 표현 분석

소망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성을 띤 꿈이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는 이유는 소망에 저항하는 의식의 법적, 도덕적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이의 성취를 위해 꿈은 왜곡, 전위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하고 있다. 왜곡은 정신 구조 체계들 간의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욕구에 의해 더욱 심화되며 비논리적이고 혼란되어 불유쾌한 것들에 논리와 질서를 부여해서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자아의 욕구도 포함된다[11].

무엇보다 주인공 다이앤의 꿈 시퀀스에서는 자신과 현실 속 친구 카밀라가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연인의 몸 속에 들어가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의 투사

라고 볼 수 있다. 리타가 (카밀라의 꿈 속 이름)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은 현재의 자신에게 대한 강한 불만과 현실 속 스타인 카밀라를 선망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는 꿈다운 표현과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티가 (다이앤의 꿈 속 이름) 리타의 머리 자르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자신과 똑같은 금발의 단발 스타일 가발을 씌워주는 장면은 은막의 여배우로 성공하기까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과 이드에 대한 스스로의 연민인 것이다[12] [Fig. 1].

현실 속 카밀라의 연인인 영화감독 아담 캐서는 자신에게는 동성연인 카밀라를 빼앗은 연적이자 자신을 무명 배우로 하대하는 캐릭터인데 꿈에서는 그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설정으로 그녀의 망상을 표현하고 있다[Fig. 2].



[Fig. 1] Diane divided into two in her dream



[Fig. 2] fragmented image of her fantasy



[Fig. 3] example of distortion of reality in dream

또한 아담의 어머니 코코는 꿈속에서는 자신이 기거하는 빌라의 매니저로 등장시키는데, 이는 친절한 것 같지만 도도한 차별주의자라는 자신의 느낌이 그대로 꿈속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Fig. 3].

자신의 꿈 속 이름인 베티의 경우, 현실 속 식당의 웨이츄레스의 이름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쳐본 명찰) 이는 실패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동일화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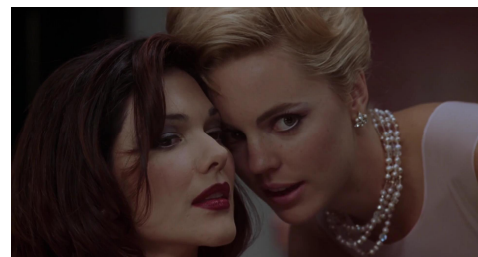


[Fig. 4] unconsciously identification in dream

3.2.2 꿈의 압축 표현 분석

프로이드가 언급한 꿈의 압축과정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정신적 이미지가 합쳐지는 것이다. 합성 인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이상의 특징들을 다른 사람의 특징들과 결합시킨 대상을 말한다[13].

꿈 속, 이름이 카밀라인 캐릭터는 검은 세력의 후원으로 협박을 통해 주연배우자리를 꿰차는 무능한 여배우로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는 현실에서 카밀라의 동성에 너로 등장, 주인공 다이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 카밀라도 무능한데 뺨으로 성공했을 거라는 주인공의 무의식 속 질투심이 두 캐릭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압축시킨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Fig. 5]. 정작 자신은 꿈속에서 캐스팅에서 초 인기를 누리는 성공을 거두는 설정을 통해 자신의 스타를 향한 욕망을 드러내며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Fig. 5] example of compression in dream

3.2.3 꿈의 상징 표현 분석

꿈의 상징화란 서로간의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생각들 사이의 연계 점을 드러내주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언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중요성이 부여되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대표해 준다. 그것은 서로 공통점만 있으면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유아기의 무의식적인 상징적 언어 (개념적 동일시(conceptual identification) - 서로 일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대상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14].

꿈 속 새벽 뜬금없이 찾아간 실렌시오 클럽의 무명가수가 립싱크로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다이앤이 경련을 일으키며 패닉하는 장면은 할리우드의 인기의 실체가 허상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꿈을 잃고 성공하지 못해 좌절한 무명배우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며 상징하고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Fig. 6], 꿈 속 윙키스 카페 옆 노숙자 역시 살인청부를 결심한 자신의 사악한 악마와의 거래를 상징함과 동시에 심장마비사하는 꿈 속 얼굴이 캐릭터를 통해 다이앤의 초자아가 느낀 현실의 냉정함과 무서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Fig. 7]. 카우보이 캐릭터 역시 거대한 검은 세력의 상징이며 노부부 역시 기득권에게 느낀 오만함과 혐오, 공포의 상징으로 묘사, 등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Fig. 8]. 또한 펜시한 형태로 왜곡 묘사된 파란 열쇠 역시 초자아가 느낀 죄의식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다이앤의 자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Fig. 9].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빗 린치 감독은 이 모든 설정을 주인공 캐릭터가 무의식에 의해 느낀 느낌을 검열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드러나는 형태로 묘사, 표현함으로써 보다 더 리얼한 꿈의 장면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또 다른 획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ig. 6] example of symbolizing in dream



[Fig. 7] example of symbolizing in dream



[Fig. 8] example of symbolizing in dream



[Fig. 9] example of symbolizing in dream

3.2.3 복선과 암시표현

암시란 명시의 반대말로 짐작하게 하는 장치를 말하며 복선이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암시하여 논리적 인과성을 주는 것으로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며 주제표현에 연관 있게 작용하는 것이다[15].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는 극 초반 다이앤이 죽기 직전의 이불 앞 거친 숨소리 쇼트를 삽입, 이후의 내용이 꿈임을 암시하는 복선을 (주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꿈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무의식적 강한 느낌을 복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인공 다이앤이 희망과 설렘을 안고 L. A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엔 안타까움과 비장함이 느껴지는 몽환적인 음악을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꿈꾸고 있는 주인공의 현재심리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으로 펜시한 파란 열쇠 역시 꿈임을 암시하고 있고 (복

선) 새벽에 공연을 보러가며 또 상식이상으로 반응하다가 갑자기 손가방에서 나타난 과관큐브와 결정적으로 주인공 공 베티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 실체가 아니라는 힌트를 점차적으로 부여하며 관객과 동시에 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의식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복선)

<Table 2> summary of various process in dream

	dream	reality	process & feeling
coco	apartment manager	mother of director	distortion - kind, but snobby with discrimination
camilla	Rita (Diane)	camilla	compression - love & hate jealousy
kissed lady	camilla, main role by black power	camilla's lesbian lover	a sense of inferiority(two character are compressed as one person)
director	diane's lover	camilla's lover	her wild fancy idea distort the reality
blue key	fancy shape	cheap shape	superego justify against guilty feeling
homeless	devil	dirty man	symbolizing fear against society
betty	diane's name	waitress	identify with her miserable life

4. 결론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 대로 데이빗 린치 감독은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통해 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관점에 충실히 편승하여 표현, 묘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 캐릭터를 두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두 캐릭터를 한 사람으로 표현 하는 등 비논리적이며 개인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어렵듯한 인상과 느낌을 모티브로 압축, 축소, 왜곡, 상징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전위시키며 보다 더 꿈에 가깝고 리얼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느낌으로 개인에게 다가섰느냐에 더 의미와 무게를 실어 인물, 단어, 장소, 색상, 그리고 소리와 같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무언가로 묘사되어 부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서 보다 더 꿈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향후 꿈 시퀀스 표현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

각하며 데이빗 린치 감독의 표현기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연출 및 제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Introduction of Psychoanalysis",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B%B6%84%EC%84%9D%ED%95%99>, 2016.6.1.
- [2] "interpretation of Psychoanalysis about dream", daum encyclopedia,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3g2300b005>
- [3] Lee, moko, "interpretation of Psychoanalysis in Freud", <http://cafe.daum.net/mbgg/Rimy/363?q=%B9%DF%C7%F6%B8%F9>, 2014.7.9
- [4] "Freud's interpretation of dream and today's interpretation of dream", http://greenfarmchicken.co.kr/bbs/bbs_d.html?atid=3321, Report shop
- [5] No problem, "Joy of watching film/ Can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ollywood's fear and loathing", <http://noproblemmylife.tistory.com/1490>, 2015.9.10.
- [6] hja3694, "The my own way critics, mulholland Drive - love uncertainty", <http://blog.naver.com/hja3694/220370244907>, 2015.5.26.
- [7] Lee, moko, "Interpretation of Psychoanalysis in Freud", 2014.7.9 <http://cafe.daum.net/mbgg/Rimy/363?q=%B9%DF%C7%F6%B8%F9>
- [8] Hong, soon-lae, "Various symbolizing way of Dream, Dr. Hong, soon-lae's interpretation of dream", understanding of dream, http://www.984.co.kr/kweb/bbs.php?table=mb_llec3, 2010.1.10.
- [9] Moonlight in Seoul, "The film, the moment, and the record", the movie story, <http://blog.naver.com/rhdms0523/220449033420>, 2015.8.12.
- [10] Lee, moko, "interpretation of Psychoanalysis in Freud", <http://cafe.daum.net/mbgg/Rimy/363?q=%B9%DF%C7%F6%B8%F9>, 2014.7.9
- [11] Son, chul-gyoon, "The compression of dream/ analysis of dream's world", The lonely sean's life, <http://blog.naver.com/thscjfrbs/15522121>, 2005.7.28.

- [12] Moonlight in Seoul, "The film, the moment, and the record", the movie story, <http://blog.naver.com/rhdms0523/220449033420>, 2015.8.12.
- [13] Son, chul-gyoon, "The compression of dream/analysis of dream's world", The lonely sean's life, <http://blog.naver.com/thscjfrbs/15522121>, 2005.7.28.
- [14] The scribble paper, "The interpretation of dream in Freud", <http://blog.naver.com/gikim50/220626848794>, 2016.2.14.
- [15] The tree inside of me, "The differences between double lines and imply", <http://cafe.daum.net/truedu/DML/77960>, real-love national language, 2015.9.1.

이 태 훈(Lee, Tae Hoon)



- 1993년 2월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디자인학사)
- 2000년 8월 :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예술학석사)
- 200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상연출, 영상미학
- E-Mail : thlee1401@empas.com